

주택·건설·건축박람회
강원eco+홈페어2016
 GANGWON ECO HOME FAIR



◇'강원에코(eco)홈페어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26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맹성규 경제부지사, 김동일 도의장, 최동용 춘천 시장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제품 홍보·정보 공유
 경제활성화 일석삼조”

“완벽시공 기반 마련
 우수업체 육성 기회”

신연균 춘천시 건설국장

신연균 춘천시 건설국장은 “강원에코홈페어2016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이 대두되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건설건축 자재 제품의 홍보, 판로 개척,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등 교통망 개선에 따라 도내 인구 유입이 많아지며 전원주택·목조주택·한옥건축 등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의미에서



강원에코홈페어2016은 수요자들이 최근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들 때일수록 멀리 함께 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강원에코홈페어2016을 공동 주최한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도내 건설관련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는 토목·건축자재, 인테리어 기자재, 건설 장비 및 공구 등 제품의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특허, 신기술·신공법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제조업체와 수요자간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한 제품 구매 및 기술 이전 등을 제공해 완벽시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원에코홈페어를 통해 선보이는 우수자재 및 신기술·공



법 등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반영돼 참여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를 유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향토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우수업체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람회가 일부 참여업체나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고 특화된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 이모저모 /

도내 경제계 인사 대거 방문 참가기업 격려

◇26일 열린 강원에코홈페어 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 도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 이번 박람회에는 이재필 KBS 춘천방송총국장, 송재우 춘천MBC 사장, 김정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강대준 강원지방조달청장, 김창호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장, 김대호 도상공회회의소협의회장, 이성오 강원도시가스 대표이사, 최성

두 도건축사회장, 조병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도회장,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박승균 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금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명예회장, 김영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도지회 수석부회장, 이선희 도유통업협회장 등이 행사를 방문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



“교육기관 내 지역 우수제품 활용”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장을 찾은 민병희 교육감은 도내 우수제품에 큰 관심을 갖고 부스들을 둘러보며 교육청에서도 지역 우수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에코홈페어서 춘천 홍보 '강원에코홈페어 2016 주택·건설·건축 박람회'가 26일 호반체육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최동용 시장이 춘천시 홍보 부스에서 직접 참석 인사들에게 관광 등을 설명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오늘 건설업 발전 심포지엄

도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개막한 2016 강원에코홈페어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건설·건축 관련 CEO 및 관계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해 건설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이어 강원건설 상생결의 대회를 갖는다. 김보경기자